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열쇠, 새빨갳다 ② 덮밥, 질푸르다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정답 ② 단어의 갈래

- ①
• 열쇠 : 열+ㄹ(어미)+쇠 → 통사적 합성어
예) 날짐승, 길짐승, 굴대 등
• 새빨갳다 : 새(접두사)+빨갳다 → 파생어
- ②
• 덮밥 : 덮(어간)+밥(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질푸르다 : 질(어간)+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 ③
• 감발 : 감(어간)+발(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돌아가다 : 돌(어간)+아(어미)+가다 → 통사적 합성어
- ④
• 젊은이 : 젊(어간)+은(어미)+이(명사) → 통사적 합성어
• 가로막다 : 가로(부사)+막다(동사) → 통사적 합성어
예) 잘되다, 가만두다

문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편진 이유가 있겠지.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어요.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답 ③ 한글맞춤법

- ①
• **치뤄야→ 치러야**
‘치루다’가 아닌 ‘치르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따라서 ‘치르+어야(연결어미)’는 ‘치러야’가 바른 표현이다.
• **대가(代價)[대:가]**
한자어는 소리가 덧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 원칙에 따라 ‘대가’로 적는다.
- ②
• **내로라하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의 뜻일 때, ‘내로라하다’이다. ‘내노라하다’로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 **뒤편진→ 뒤편진**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될 때 ‘뒤편진다’를 쓴다.
예) 성적이 남들보다 뒤편진다.
그는 10km 지점부터 뒤편지기 시작했다.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졌을 때는 ‘뒤편지다’이다.
예) 화투짝이 뒤편졌다.
바람에 현수막이 뒤편졌다.
‘뒤편지다’는 ‘뒤로 떨어지다’에, ‘뒤편지다’는 ‘뒤집히다’에 의미의 초점이 있다.
- ③
• **거여요 / 거예요**
‘이에요/이어요’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에요/이어요’에서 ‘이’는 서술격 조사이고 ‘-어요/-어요’가 종결어미이다. 그러므로 ‘이에요/이어요’는 명

사와 결합하고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할 때는 서술격 조사 없이 ‘-어요/-어요’가 결합한다. 또한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이에요’는 ‘예요’, ‘이어요’는 ‘여요’로 줄어든다.

‘거여요’는 ‘것(명사)’의 준말인 ‘거’에 ‘이다’가 붙어 ‘거이다’가 되고 ‘이다’의 어간 ‘이’에 어미 ‘어요’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거이어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어요’가 줄면 ‘여요’가 되므로 ‘거여요’가 맞다. 또한 ‘거이에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요’가 줄면 ‘예요’가 되므로 ‘거예요’가 맞다.

‘거예요(×)

④

• **잠궜 → 잠가**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등의 뜻일 때, ‘잠그다’가 옳다. ‘잠구다’는 바르지 않다. ‘잠그+아’는 ‘잠가’로 표기한다.

• **생각지**

어간의 끝음절 ‘하’가 받침 ‘ㄱ, ㅂ, ㅅ’ 뒤에서 아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지(본말)-생각지(준말)’

문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① 띄어쓰기

① **십여 년 전에**

‘-여(餘)’는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주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붙여 쓰인다.

‘년(年)’은 해를 세는 단위로서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 **정한대로 → 정한 대로**

체언 뒤에 ‘대로’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관형사형 어미 뒤에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 **수밖에**

‘밖에’는 조사인 ‘밖에’가 있고 명사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가 있다. 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고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며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없다’, ‘모르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뜻하는 말과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③

• **요청시→ 요청 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 ‘시’는 ‘요청 시’와 같이 앞말과 띄어 적는다.

예) 비행 시, 검토 시, 완료 시, 사용 시

다만 비상시(非常時), 유사시(有事時), 평상시(平常時), 필요시(必要時)와 같이 합성어로 인정된 경우는 ‘시’를 앞말과 띄어 적지 않는다.

• **재조정 하여야 → 재조정하여야**

‘-하다’는 명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④

• **감당할 만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이때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다.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능력뿐 아니라

체언 뒤에 붙어 쓰인 '뿐'은 조사이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이어진 '뿐'은 의존 명사이다.

◆ 추진력 마저 → 추진력마저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문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정답 ② 글 다듬기

- ① '돌파하다'는 '깨뜨려 뚫고 나아가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내다'의 뜻이다. 문맥상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의 의미이므로 '탈피하다'가 적절하다.
- ② 앞 뒤 문장은 역접의 관계이다. '또한'은 첨가의 관계이므로 바르지 않다.
- ③ 주어가 '~것은'이므로 서술어도 '~된다는 점이다/사실이다/것이다'라는 형식을 갖춰야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

문 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 ①否認 ②否定 ③否決 ④否運

정답 ④ 한자어의 발음

- ① 부인(否認 : 음 아닐 부/認 알 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② 부정(否定 : 음 아닐 부/定 정할 정) 그럴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③ 부결(否決 : 음 아닐 부/決 결단할 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④ 비운(否運 : 음 막힐 비/運 옮길 운)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불행한 운명.

문 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정답 ③

말(언어)보다 생각이 더 큰 그릇이며, 생각에는 말(언어)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므로, ③의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감동'이 가장 적절하다.

문 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패널 토의는 3~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정답 ④

문제에서 '주제에 대해 토의'라고 하였다. ㉠패널 토의나 ㉡심포지엄은 모두 토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의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 하는 것은 토론이다.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토의(討議)’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討論)’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이다. ‘토의’와 ‘토론’은 목적이 다른데, ‘토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목적이고, ‘토론’은 ‘찬반 토론’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 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정답 ④

밑줄 친 구절의 앞 내용을 보면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끝 부분에서 ‘화염!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이 구절을 살펴보면 ‘감정의 재’는 ‘야성이나 힘, 귀기 등 감정이 감금당한 상태’이다.

문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 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으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 참, 땀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제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로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 참, 땀은 술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②

소년(이발소 소년)이 개천에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박태원, ‘천변풍경’

1. 작품 해설

- 1) 갈래 : 장편 소설, 세태 소설 / 배경 : 1930년대 서울 청계천변 /
- 2) 성격 : 모더니즘 계열
- 3) 제재 :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일상사(日常事)
- 4) 주제 :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들의 삶과 애환
- 5) 의의 : 세태 소설 혹은 경아리(서울) 문학의 대표작

2. 줄거리 ; 재봉은 사춘기 소년으로 이발소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감아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손님이 없을 때는 으레 창 밖을 내다보며 청계천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속물적인 행태를 비판한다. 순박한 시골 처녀를 서울로 유인해 온 금점꾼, 여급에게 돈을 주어 환심을 사려고 하는 종로의 은방 주인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세상에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민 주사는 부의회 선거에 낙선하고 마작 놀음에 밤을 새우며 주색에 탐닉한다. 재봉이 또래의 창수가 시골에서 올라와 복잡한 서울의 풍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도 한약방에서 일하면서 봉급을 적게 주는 주인을 비판하게 되고 점점 도시의 아이로 성장해 나간다.

3. 작품 해설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청계천변의 주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세태 소설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작가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마치 카메라처럼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담아 내고 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골서 도시로 올라온 소년 소녀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천변 풍경”은 때문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눈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애환과 위선의 삶을 포착하고 있다.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정답 ④

제시 글은 듣기의 효과에 관한 실험의 결과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의 태도에 따라 교수의 강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된다. 결국 듣는 학생들과 강의하는 교수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공감하며 듣기의 중요성'이 될 것이다.

[기출]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가직 9급]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듣기의 효과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다음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간히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드러나게 할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우선 그 재미없던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험 차원에서 재미 삼아 강의를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강의를 흥미롭게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게 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듣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 ② 심리학 강의를 듣는 인류학과 학생들이 듣기 실험에 참여하였다.
- ③ 실험 전에 인류학 교수는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 ④ 학생들은 실험 내내 인류학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③ [국가직 9급]

문 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정답 ③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주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난다.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②

- ① ‘자생(自生)’은 저절로 나서 자란다는 뜻이다. 참고로, ‘서식(棲息)’은 ‘깃들여 산다’는 뜻으로 동물에게만 쓰는 말이므로 식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② 개재 → 계제
- 개재(介在 : 介 낚 개/在 있을 재) :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들’, ‘끼여 있음’으로 순화.
 - 계제(階梯 : 階 섬돌 계/梯 사다리 제) : ㉠사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게재(揭載)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③ 성패(成敗 : 成 이룰 성/敗 패할 패) :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④
- 유례(類例 : 類 무리 유/例 법식례) : 같거나 비슷한 예. [같은 말] 전례(前例)(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주로 없거나 적다는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며, “같거나 비슷한 예” 또는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유래(由來 : 由 말미암을 유/來 올 래)’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이르는 말로, ‘한식의 유래/이 민족 행사의 유래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유래(由來)’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내력’, ‘어떤 것에 기인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한식의 유래.’ ‘유목생활에서 유래한 신앙.’ ‘유례(類例)’는 ‘같거나 비슷한 예’, ‘이전부터 있던 사례’를 말한다. 주로 ‘없거나 적다’는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문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타올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정답 ①

- ① 타올, 한, 독보적, 기록 : 4개
타올(명사)+에(조사) 관한(동사) 한(명사) 독보적(명사)인(조사) 기록(명사)도(보조사) 깨졌다(동사)
- ② 상자, 것 : 2개
상자(명사)에(조사) 이런(관형사) 것(의존명사)이(조사) 깔끔하게(형용사) 정돈되어(동사) 있었다(동사)
- ③ 친구, 외, 사람 : 3개
친구(명사) 외(명사)에(조사)는(조사) 다른(관형사) 사람(명사)에게(조사) 항상(부사) 못되게(형용사) 군다(동사)
- ④ 모퉁이, 얼굴, 이 : 3개
저(관형사) 모퉁이(명사)에서(조사) 얼굴(명사)이(조사) 하얀(형용사) 이(명사)가(조사) 걸어오고(동사) 있다(동사)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③

- ① 규정(規正) → 규정(規定)
• 규정(規正 : 規 법 규/正 바를 정) 바로잡아서 고침.
• 규정(規定 : 規 법 규/定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② 구조(救助) → 구조(構造)
• 구조(救助 : 救 구원할 구/助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 구조(構造 : 構 엮을 구/造 지을 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이름.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 ③ 충분(充分) : 充 채울 충/分 나눌 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함.
- ④ 현상(懸賞) → 현상(現象)
• 현상(懸賞 : 懸 달 현/賞 상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 현상(現象 : 現 나타날 현/象 코끼리 상)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문 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정답 ④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 口 입 구/蜜 꿀 밀/腹 배 복/劍 칼 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 ② 일패도지(一敗塗地) : 一 한 일/敗 패할 패/塗 칠할 도/地 땅 지) 한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함.
- ③ 수서양단(首鼠兩端) : 首 머리 수/鼠 쥐 서/兩 두 양/端 끝 단) 구멍속에서 목을 내민 쥐가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로, ㉠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 ㉡ 어느 쪽으로도 붙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이르는 말.
-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後 뒤 후/生 날 생/可 옳을 가/畏 두려워할 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다는 말.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①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것으로, 민수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영어 'crisis'는 그리스어의 '분리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한자어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

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②이다.

문 18.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말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가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란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닻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말아들 대소는 주몽을 '후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소와 모의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6. 06. 1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정답 ③

제시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③ 자신의 견해보다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적절하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

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궤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궤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정답 ②

② 용어의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① 자문자답 형식은 3번째 문단에 제시되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 그러나 ~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과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으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궤련을 피우지 않음을 설명하였다.